

아즈텍(Aztec) 복식문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ultural Aspects of Aztec Dress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과정
이 정 란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
Ph.D. Course : Lee, Jeong Ran

目 次

I. 서 론	IV. 결 론
II. 아즈텍제국과 문화적 특성	참 고 문 헌
III. 아즈텍의 복식문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iversity and speciality of Aztec dress which has not been well known, and to overcome ethnocentrism in clothing perceptions.

From 15 century to early 16 century, the Aztec empire based on the unique view of the world, most flourished in Mesoamerica. Ritualistic and official side of Aztec life was reflected well on dress.

Most Aztec garments consisted of unsewn pieces of cloth, draped on the body as loincloth, mantle and wraparound skirt. Slightly more complicated garments such as women's blouses(huipils) and men's simple jackets were created by sewing together two or more pieces of material.

In the sharply stratified world of Aztec, strict sumptuary laws controlled dress. The garments of lower classes were made of maguey or yucca fiber, and only the upper classes were allowed to wear cotton clothing. In addition to material, color, elaborateness and even manner of tying the mantle were carefully controlled by government edict.

As the Aztec empire expanded and became wealthier, the sumptuary laws could not actually dictate what people wore everyday but rather provided a set of rules governing clothing for ceremonial occasions.

Aztec's warrior costumes, consisted of headdress, towering back devices, feather garments, were sufficient to suggest the theatrical grandeur of what must have been one of the most magnificently attired armies ever assembled.

I. 서 론

복식은 한 시대, 사회, 문화 의식을 표현하는 동시에, 이를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 통합체로서 모든 복식문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도구에 의해서 익혀진 기술이 함께 작용하여 시작되었다. 시대의 특징 양식으로서의 의복 형태는 종족, 지리, 사회, 연령에 따라 집단별로 다른 의복의 관습을 가지고 발전하였으며, 특별한 기술의 발달이나 도덕적, 미적 배경 속에서 의복은 다르게 변천되어 왔다.¹⁾

각 시대에는 시대의 의지가 요구되는 것처럼, 각 문화의 전통에는 각각의 의지가 있으며 복식문화를 통해서 인간은 그들의 의지를 실현한다. 복식의 연구를 그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 귀한 열쇠라고 한다면 아즈텍복식처럼 이 개념이 잘 적용되는 예는 없다.²⁾

톨테카문명(A.D. 900-1200)의 유산을 이어받아 형성된 아즈텍제국(A.D. 1350-1521)은 15세기부터 16세기초에 메조아메리카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전개시켰다. 아즈텍제국은 스페인에 의해 멸망되기 전 서구 어느 지역보다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문화 유산이 속속 발굴되면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아즈텍은 매우 독특한 복식문화를 소유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것은 멕시코 민족의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늘날 문화 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배경과 취향을 가진 민족이나 개인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지만 의복 상징에 대한 의미는 서로 이해하거나 공유하기 힘들다. 즉 다른 문화적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상징이나 행동에 대해 자신의 문화적 의미를 투사하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는 복식문화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³⁾ 이러한 의미에서 복식에 대한 객관적 파악은 복식에 반영된 문화적 배경과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 되며 반대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함으로써 복식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바르게 인식되지 못한 아즈텍의 복식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복식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파악하며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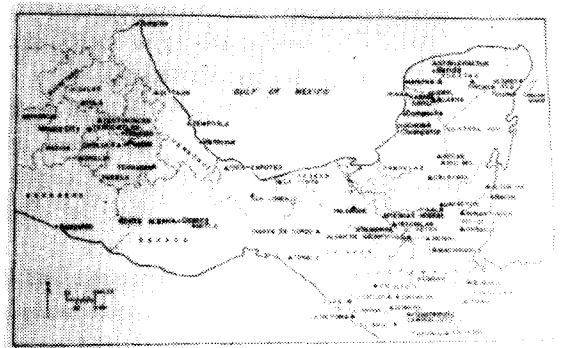
산업화 이전사회가 갖는 복식의 특징과 상징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아즈텍제국의 성립에서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나 생활사를 다룬 기록뿐 아니라 고고학적, 문화사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복식문화를 연구하는 문헌적 조사를 하였다.

II. 아즈텍제국과 문화적 특성

1. 아즈텍제국의 흥망

아즈텍제국은 아즈텍인들이 12세기 초엽부터 유랑하면서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 14세기에 멕시코 중앙고원 분지에 정착하여 건설한 강력한 국가였다.(그림 1) '아즈텍'이란 말은 정확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며, 이 민족이 '아스트란(Aztlan)'이란 상상의 나라에서 온 것 같다는 풍문이 떠돌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 당시의 호칭은 테노치카(Tenochica)였다.⁴⁾ 그 당시 멕시코의 중앙고원에는 쿨와칸(Culhuacan)이라는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어 아즈텍인들은 이 선주자들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였다. 그러나 톨텍(toltec)계의 귀족을 통치자로 맞아 국가 건설을 촉진시키고 이웃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맺어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갔다.

14세기 중엽에 아즈텍인들은 테즈코코(Tetzco) 호수 서부의 섬에 정착하여 두 집단으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는 쿨와칸의 보호령으로 지금의 멕시코시티(Mexico City)에 해당하는 테노치티트란(Tenochtitla-



〈Robert Wauchope, The Indian Background of Latin American History, 1970〉

(그림 1) 아즈텍제국 당시의 메조아메리카 일대

n)과 다른 하나는 아즈카포잘코(Azcapotzalco)의 속국인 트라테롤코(Tlatelolco)였다. 군국적 발전을 거듭한 테노치티트란은 인근 도시국가를 차례로 병합해 나갔다. 1473년, 테노치티트란은 트라테롤코를 흡수하고 정치 통합을 이루었다. 아즈텍이 메조아메리카의 주도권을 장악한 15세기 중엽에는 현재 콰테말라 국경에서부터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멕시코 중앙부를 거의 평정하였다. 스페인군이 도착할 당시 주변 국가를 포함한 아즈텍제국의 영역은 약 200,000km²였으며, 총 인구는 5백만에서 6백만에 이르렀다.⁹⁾ 번성기의 아즈텍제국은 도시의 규모와 도시계획, 사원과 궁전, 상업의 발달이 놀라운 경지에 이르렀으며, 수도인 테노치티트란의 인구는 30만에 달하였는데(당시 파리의 인구는 10만, 런던은 20만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고 변화한 도시의 하나였다.¹⁰⁾

그러나 1519년 스페인의 침입으로 자원과 인구의 균형은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종속국에 대한 정치적 결속은 약화되었으며 아즈텍인의 인신공양에 대해 반발을 가졌던 주변 국가들은 오히려 스페인에 동조하였다. 전쟁의 방법에 있어 스페인군은 금속 무기, 말과 함께 기술적 우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목적에 있어서도 가능한 많은 수의 적을 죽이고 광범위한 파괴를 유도하여 적에 대한 완벽한 전복을 꾀하였다. 반면에 아즈텍인들은 현저히 다른 목적을 갖고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물론 인디안들도 전쟁을 세력 확장의 수단으로 행하였지만 그보다 그들은 전쟁을 신의 의지를 따르는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전쟁 시간과 장소는 쌍방 간에 신중히 협정되고 전쟁도 짧은 기간으로 한정되었으며, 무사들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위해 포로를 사로잡아야 했다. 이처럼 전쟁의 목적이나 방법에 대한 아즈텍인의 견해는 무장한 유럽인을 대항하기에 역부족이었으며 결국 아즈텍제국은 Hernán Cortés에 의해 붕괴를 맞이하게 되었다.

2. 문화적 특성

수십만의 인구를 가진 테노치티트란은 스페인 정복 전, 메조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예술의

중심지였다. 메조아메리카에서는 수천년 전부터 돌사원과 궁전, 조각, 보석 장식품들이 엄청난 노력과 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즈텍은 문화적으로 테즈코코의 영향 아래 성장하였다.¹¹⁾ 테즈코코는 문화도시로 번영하였고 왕은 스스로 시인이라 자처하며 아름다운 왕궁과 정원을 만들고 그림문서를 그리게 하여 보존하였다.¹²⁾ 아즈텍의 그림문자는 음성문자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면서 덜 표준화되었고 전문적 해석이 필요하였으므로 기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대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한 예술작품으로 민족, 자연, 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문화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곳일수록 가시적 예술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즈텍의 예술은 한마디로 사상전달 체계(communication system), 부와 정치력의 표현,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¹³⁾ 조각과 그림을 통해 지배자의 행동을 볼 수 있으며 신위와 그것의 숭배의식 역시 예술품과 복식을 통해 남아 있다.

아즈텍에 있어서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독특한 세계관이다. 아즈텍의 주신인 위츠로포츠티리(Huitzilopochtli)는 매일 아침 대지모신의 품에서 나와 저녁 무렵에는 죽음의 나라로 빠져 들어가는 태양이며 젊은 전사라고 여겼다. 이 주신이 매일 하늘 위로 올라가는 무수한 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간은 태양에게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며 만일 제대로 영양공급을 못할 경우에는 태양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에 따라 인류도 멸망하게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인간의 피가 신에게 제공되기에 이르렀다.¹⁴⁾ 이처럼 아즈텍인들은 자연이 종교를 통해 통제된다고 믿었으므로 인간은 의식을 통해 신을 달래야 했고, 의식을 위해서는 신위의 형상, 복식, 고귀한 봉납물과 제물이 필요했다. 예술품은 보이지 않는 힘을 보이게 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했다.

아사아카틀왕(Axayacatl, 재위 A.D. 1469-1481) 때에는 유명한 '태양의 돌'이 만들어지고, 아우이소틀왕(Ahuitzotl, 재위 A.D. 1486-1502) 때에는 수도의 중앙에 대신전이 완성되어 전성기에 이른다. 이 대신전의 기념제에는 2만명의 인신공양이 있었다.¹⁵⁾

종교적 목적 하의 물품은 귀족과 평민이 모두 소유할 수 있었으며, 귀족의 사원에서 쓰이는 신위의

형상은 거대한 규모의 보석으로 장식되었다. 남아있는 수백의 작은 조각은 대부분 물과 풍요의 신이며 농업인구의 최대의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¹²⁾

아즈텍사회에서는 잉여 부의 대부분은 예술품으로 축적되었다. 예술품은 경제적 생산성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므로 아즈텍인들은 귀족을 위해 많은 예술품을 생산하도록 조직되었다. 이러한 부의 일부는 봉납을 위해 사원에 묻거나 귀족의 무덤에 넣어줌으로써 희소가치를 유지하여 계속적인 거래와 생산을 자극하였는지도 모른다.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은 국가세력 팽창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¹³⁾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은 순수한 종교적, 심미적 이유만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즉 그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연구적인 위력과의 형태인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거대한 인구나 경제적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인접 국가들과 끊임없는 경쟁을 겪어야 했던 아즈텍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없더라도 정치, 경제, 군사력을 반영함으로써 평화적인 경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즈텍인들도 거대한 규모와 화려함, 초인적 업적을 통해 그 문화 속에서의 자부심을 고무시켰다.

III. 아즈텍의 복식문화

1. 복식의 구조

1) 메조아메리카의 복식유형

복식의 형태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분류되고 있는데 서방형(西方型)인 신대륙의 판초(poncho)형으로 널리 알려진¹⁴⁾ 메조아메리카의 복식은 초기의 형태는 열대형인 로인 클로스(loincloth)였다. 열대형 복식은 원시형에서 엉덩이에 들렀던 고리 모양의 복식에 매달려 있던 부가물의 크기가 증대되어 로인 클로스로 발전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복식의 정숙성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 약간의 상체 복식이 가해지면서 좀더 발달하게 되는데 이 복식은 헐렁하고 가벼우면서 몸에 밀착되지 않는 형태로서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다.¹⁵⁾

Patrica Anawalt¹⁶⁾는 아즈텍을 비롯한 메조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 남녀복에 대한 목록을 모아 분류하면서 그것의 구성법에 따라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draped, slip-on, open-sewn,^{*)} closed-sewn과 limb-encasing garment이다.(표 1)

(표 1) 정복 전 메조아메리카 일대의 복식 종류

male	female
loincloth (maxtlatl)	skirt
hip-cloth	hip-cloth
cape	cape
kilt	huipil
sleeveless jacket (xicolli)	
robe	
quilted armor	
short tunic (ehuatl)	
warrior ceremonial costume	
ceremonial costume	

() 속은 아즈텍의 토착어인 나우아틀어 표기임.

2) 아즈텍의 복식구조

더운 기후로 인하여 아즈텍인들은 최소한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옷감을 허리에 두르는 단순한 로인 클로스를 여자는 튜닉 스커트를 입었다.¹⁸⁾ 밤과 추운 기후에는 사각형 맨틀(mantle, 아즈텍의 토착어인 Nahuatl어로는 tilmatli)을 어깨에 들렀다. 대부분의 아즈텍복식은 봉재하지 않은 직물로 이루어지며 그대로 인체 위에 두르나 좀더 복잡한 의복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직물 가장자리를 함께 꿰매어 구성하였다.

여성들은 헐렁하고 소매없는 블라우스 즉 직선으로 잘라 머리와 팔이 들어가도록 구멍을 낸 우이필(huipil)을 입고 그 밑에 직선으로 된 스커트를 입었다. 스커트는 허리에서 밴드나 끈으로 묶고 그와 함께 짧은 쇼울과 비슷한 장방형의 천은 머리에서 써서 가슴 앞으로 내려온다. 이것은 처음에는 케스케

*1) Boucher¹⁷⁾에 따르면 draped costume은 천을 몸에 감는 복식, slip-on costume은 어깨에 걸치는 복식, open sewn costume은 다른 복식 위에 입는 개방된 재봉형의 복식이며 closed-sewn costume은 치마와 같은 꿰매된 재봉형의 복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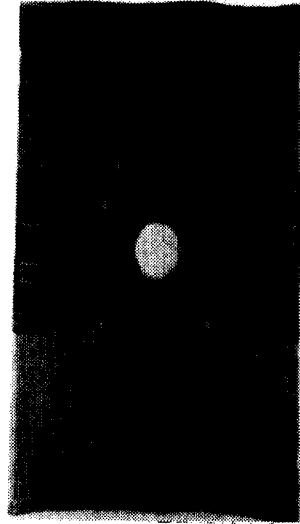


〈Archaeology 33 (1980), P42〉
 (그림 2) 아즈텍 평민 남자복식

미틀(quechquemiti)이라 부르며 나체의 상반신의 가슴을 덮어 사용했지만 스페인과의 접촉 시기에는 길이가 허리에까지 내려와 멋있는 상의가 되었다.¹⁹⁾ 여자들의 머리는 길게 땋아 내리고 때로는 리본으로 섞어 꼬은 다음 머리둘레에 감았다.²⁰⁾ 평민남자들은 모자없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추운 날씨에는 가죽 또는 직조한 용설란(maguey) 섬유로 만든 샌달을 신었다.(그림 2)

메조아메리카의 농경사회에서도 의복과 직물 디자인은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힘을 갖는다고 믿어졌으므로 우이필의 디자인 전개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태양이며 우이필에 고정된 4개의 천은 동서남북의 기본 방위를 나타낸다.(그림 3)

머리가 두개 달린 독수리, 생명의 나무 또는 착용자를 자연세계 및 씨족에 관련시키는 작은 동물은 농경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우이필은 십자를 이루고 착용자는 우주의 중앙에 위치하며 가족의 문장이나 상징물에 둘러싸였다.²¹⁾



〈Haffenreffer 박물관 소장〉
 (그림 3) 메조아메리카의 우이필

또한 아즈텍사회에서는 머리쓰개의 형태가 종족, 가족, 사회 계급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이었다. Cortés의 군사들이 테노치티트란에 도착하였을 때 아즈텍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손님으로 맞아야할지 적으로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때 아즈텍인들은 군사들의 헬멧 하나를 빌리기를 간청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이 이상한 사람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²²⁾

세계의 많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아즈텍은 의복으로 사람들 간의 사회적 차이를 구분하려 했으며 사치와 화려함이 의복에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남자들은 코나 아래 입술을 뚫어서 장신구를 걸고 큰 귀걸이는 귀볼 속에 끼워 넣었다. 정교한 목걸이와 펜던트, 팔찌, 장식적인 다리 링은 의식을 위한 의복에 장려함을 더해 주었다.²³⁾ 아즈텍인들이 즐긴 보석은 금, 은, 구리, 조개껍데기와 터어키석, 비취, 에메랄드, 오팔, 월장석 등 다양한 색상으로 이것은 의례용 복식, 머리장식, 귀족의 사치품으로 사용되었다. 그중 가장 가치가 있었던 것은 비취였으며 멕시코 계곡 멀리에서 수입되어 희귀함이 가치를 더 높였다. 반면 정복자들이 가장 탐내었던 금은 중요성에 있어 이차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

기보다는 '신의 배설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후에 정복자들이 아즈텍의 유물에서 비취, 터어키석, 고급 깃털을 제쳐두고 금만을 뜯어내는 모습을 보고 아즈텍인들은 애무 놀랐다고 한다.²⁴⁾ 특히 메조아메리카의 장식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은 깃털이었다. 주로 여인들이 그것을 만들거나 직조과정에 깃털을 묶어 넣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중 꼬리털이 3피트나 되고 무지개빛의 초록색인 께잘새(quetzal)가 가장 섬세하고 가치있는 새였다.²⁵⁾

스페인 정복 후에는 유럽인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새로운 재료, 기술, 스타일이 도입되어 점차 토착 의복에 흡수, 융화되어 갔다. 스페인 정복 후 메조아메리카의 변천된 의복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표 2) 16세기 이후 스페인의 복식이 멕시코 민속복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유럽풍이 가미된 멕시코 민속의상에 스페인 것과 동일한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그 중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우이펠에서 나온 판초와 챙이 큰 모자인 솜브레로(sombrero)이다.²⁶⁾

(표 2) 정복 후 변천된 복식 종류

poncho (sarape)
tailored pants (pantalones)
tailored shirts (camisa)
over-pants (sobre-pantalones)
tailored jacket (chaqueta)
hat (sombrero)
shawl (rebozo)
tailored blouse (blusa)
gathered skirt (enagua)
apron (delantal)
veil (velo)

() 속은 스페인어 표기임.

2. 복식금제령

복식금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나타났다. 복식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복식금제는 유행을 방지하거나 사치를 막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신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다.²⁷⁾

아즈텍 사회는 귀족, 상인, 평민, 무농의 노동자, 노예 집단의 순으로 엄격히 계층화된 사회였으며 이에 따라 복식을 엄격히 통제한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²⁸⁾ 아즈텍인들은 각 계급복식에 있어 섬유와 장식 뿐 아니라 그것을 입는 방법으로도 복식을 규제하였다. 기후와 매장방법 때문에 비록 실제적인 유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메조아메리카의 문화산물 중의 하나인 상형문자에 의하여 의복과 관습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²⁹⁾ 오늘날 사슴가죽이나 나무 껍질 종이에 기록된 수천 가지의 상형문자의 기록들은 대개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아즈텍 토착의 그림 뿐 아니라 16세기 카톨릭 선교사들에 의해서도 아즈텍에 관한 여러 측면이 상세히 알려지게 되었는데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Franciscan Fray Bernardo de Sahagún이다. 그는 아즈텍 토착어를 배우고 나이 든 인디안 정보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아즈텍사회를 포괄하는 최대의 백과사전인 Florentine Codex를 남겼다. 또 다른 선교사로는 Dominican Fray Diego de Durán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아즈텍황제 몬테스마 1세(Montezuma, 재위 A. D. 1440-1469)에 의해 공포된 법령을 "History of the Indies of New Spain"이라는 책에 기록하였다.³⁰⁾ 이 법령 속에 포함된 의복에 대한 제한은 "왕만이 다양한 색상의 실과 디자인을 갖고 깃털로 장식된 면 맨틀을 입을 수 있다"는 것과 "..... 일반 병사는 가장 단순한 맨틀만을 입어야 하며 다른 계급으로부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자수나 특별한 디자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12명의 대군주는 어떠한 맨틀을 입고 부군주는 어떤 것을 입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평민들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면 의복을 입지 못하고 용설란 섬유로 된 옷만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그림 4, 그림 5)

그림 4에 나타난 좌측 군주의 복식은 다산을 상징하는 소라나팔 무늬가 반복된 크림색 맨틀과 나비인 듯한 곤충으로 장식된 붉은색 로인 클로스이며, 신발은 차가(jaguar) 가죽이다. 또한 Durán은 남자들의 맨틀의 길이가 어떻게 규제되는가를 설명하는데 평민의 맨틀은 무릎 아래로 입을 수 없으나 다리에 부상을 당한 전사(warrior)는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만 그것이 허용되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오른쪽 어깨



〈Archaeology 33 (1980), P33〉

(그림 4) 군주의 복식



〈Archaeology 33 (1980), P35〉

(그림 5) 특권계층임을 상징하는 tenixyo 테두리의
맨틀과 귀족복식

위로 맨틀 또는 클록(cloak)을 매었으나 일부 귀족과 사제는 턱 밑 앞중심에 매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금제 뿐 아니라 Sahagún은 최고 서열의 귀족만이 화려한 샌달을 신는데 황제 앞에서는 맨발로 황제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기록하였다. 황제의 생활은 매우 화려하고 사치스러우며 특히 황제가 신는 신발은 밑바닥이 황금이고 윗부분은 술한 보석으로 장식되었다.³¹⁾

이상의 기록을 통해 아즈텍 하류 계층의 의복은 유카 또는 용설란 섬유로 만들어졌으며 남성들의 일상복인 로인 클로스과 맨틀은 재료와 길이, 색, 정교함, 매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령에 의해 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자의 지위는 한 눈에 확인될 수 있었고 맨틀의 정교함과 화려함은 전쟁에서의 공적에 비례하였다.

반항적인 귀족은 처벌의 한 형태로 하류 계층이 입는 용설란 섬유의 틸마트리를 입어야 했다. 예를 들면 황제는 적당한 시기에 조공을 지불하지 않은 정복도시의 군주와 전쟁에서 대패한 책임자에게 머리를 자르고 훈장을 박탈하며 먼 맨틀을 입는 것을 금하였다. 아즈텍제국이 확장되고 더 부유해짐에 따라 상인에 의해 거래되는 사치품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었다. 상인 계급의 점차적인 풍요와 중요성은 귀족을 위협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긴장은 상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겸양의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의복에 있어서 상인들은 일상복으로는 형겼을 텐 소박한 틸마트리를 입고 특별한 예식을 위한 것은 잘 보관해 두었으며 공적으로 인해 황제로부터 수여받은 틸마트리도 특정 휴일에만 입을 수 있었다.³²⁾

그러나 복식금제에 의해 엄격히 규제된다 하더라도 지위를 상징하는 물품들 — 귀금속, 화려한 깃털, 의복과 직물 — 은 특별한 장소를 통해 제공되었다. 트라테몰코는 매일 25,000명이 운집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모든 물건이 거래되며 지배자는 시장과 물건을 감독하였다. 그러나 것처럼 붐비고 바쁜 시장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므로 아마 대중은 맨틀을 비롯하여 사고자 하는 물품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장에서의 판매 외에 다른 비공식적인 길을 통해서도 맨틀이 분배

되었다. 사원의 봉납, 장례식, 선물로서도 거래되었으며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주는 댓가로 사제에게 비싼 코이요테(coyote)털을 제공하기도 했다. 맨틀의 유동성은 또 다른 예에서도 나타난다. Sahagún은 그의 작품 중 제2권인 'Ceremonies'에서 아즈텍의 이웃 종족인 오토미(Otomi)의 축제와 관련된 게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 로프를 형성하여 동물을 잡는 것이다. 동물을 잡은 사람에게는 가장자리가 깃털로 처리된 특수한 케이프가 황제로부터 수여된다. 포획자는 그 맨틀을 입을 수 있고 잡지 못한 사람은 잘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팔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같은 책에서 나무 꼭대기에 놓아둔 신의 형상을 먼저 잡는 자에게 가장 자리에 깃털이 달리고 브라운색의 줄이 있는 맨틀이 주어지는 축제의 설명에서도 신의 형상을 잡지 못했다하더라도 맨틀을 지니고 있다가 가난하거나 아플 때 팔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예로부터 지위를 상징하는 맨틀은 업적이 훌륭한 사람에게 뿐 아니라 활동에 참가한 전원에게 수여되며 이 두 집단(승자와 참가자) 모두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또 Sahagún은 제 10권인 'People'에서도 복식금제에 다소 대조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가난하고 초라한 하류 계층이 다양하고 화려한 용설란 섬유 맨틀을 입었으며 용설란 섬유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옥수수 반죽에 담그는데 이것을 말려서 광을 내면 고급스러운 광택이 나며 더 비싸진다고 하였다. 이 천을 두르려면 그릇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며 분명 하류 계층이 더 나은 계층의 의복을 흉내내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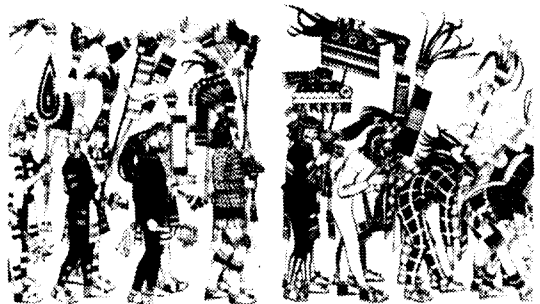
한편 자료에 의하면 하류층 뿐 아니라 귀족도 용설란 섬유의 케이프를 입었다. 한 귀족은 매우 화려한 용설란 섬유로 만든 맨틀을 입고 있으며 스페인에 굴복 후 마지막 황제인 콰우아테모(Quauah Atemoc, 재위 A.D. 1520-1524) 역시 용설란 섬유의 맨틀을 입고, 위대한 아즈텍신 위츠로포츠티리의 초상에조차도 용설란 섬유의 맨틀이 입혀져 있다. 군주와 귀족은 면이나 용설란 섬유를 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재료 자체보다는 의복 장식에 따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상류 계층에서는 디자인이 직물보다 더 사회적인 의미가 컸다.

엄격한 복식금제령은 의식적이고 관료적인 생활의 측면에 주로 적용된 것으로 정복전 테노치티탄의 군사적, 정치적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복식금제령은 사람들의 일상복에 대한 엄격한 통제이기도 하다. 오히려 의례적이며 의식적인 의복을 통제하는데 더 큰 원칙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음의 전사복(warrior costume)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 전사복

아즈텍에 대한 스페인의 정복은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정복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스페인 정복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즈텍 전쟁은 매우 독특하였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리면 깃털로 만든 화려한 색의 의복을 차려입은 무사들은 전쟁터로 나간다. 고위 전사는 등에 부착된 문장(back device)에 의해 전쟁터에서 구별될 수 있었다. 이것은 정교하고 복잡한 바구니 세공품(basket-work)으로 고무, 깃털, 금, 은으로 덮여진다. 각각의 문장에는 자신의 이름이 있고 전쟁에서의 공적에 따라 서열이 인정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다. 즉 이것은 전쟁에서의 용맹성에 따른 특권적인 표식이나 훈장으로 부착되는 것이다.(그림 6) 정복자의 기록과 아즈텍의 토착 그림은 이 문장의 복잡함과 정교함 뿐 아니라 전사복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것처럼 서지기 쉽고 정교하며 고급스러운 장식품이 실제 전쟁에서 쓰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즈텍 전쟁의 기본적인 의복은 면갑옷인 이치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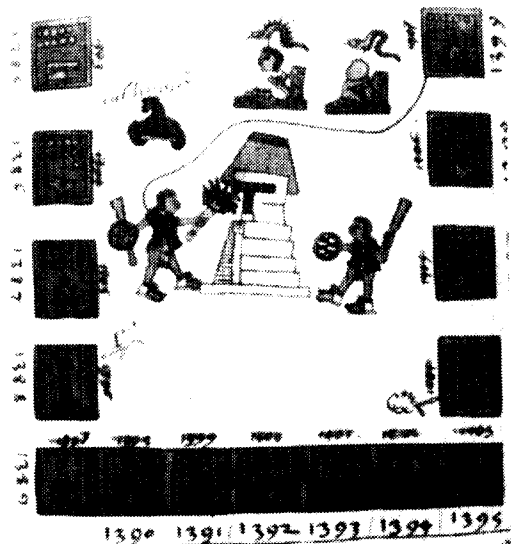


(Keith Henderson and W.J. Drescott, Conquest of Mexico, 1922)

(그림 6) 소속 군대를 나타내는 문장을 등에 걸고 있는 전사들

우이필리(ichcahuipilli)와 에우아틀(ehuatl)로 불린 튜닉, 특별한 예복인 트라우이트리(tlahuiztli)를 들 수 있다.³⁰ 면갑옷은 두 층의 누빈 천 사이에 방직하지 않은 면을 넣어 만들었다. 아즈텍의 많은 그림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 갑옷은 세 가지 스타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형태는 짧은 자켓 스타일의 면갑옷이며 한 전쟁 장면에서 주인공들은 나무에 흑요석으로 테가 둘러진 전쟁 곤봉(macquahuitl)과 갈대나 나무로 만들어 깃털로 덮여진 방패(chimalli)를 가지고 있다. 승리한 용사는 정복한 도시의 신위를 불태우며 타오르는 햇불을 자랑하고 있다.(그림 7) 면갑옷의 두번째 형태는 장식적인 면갑옷에 퍼진 튜닉, 투창을 들고 있는 무사의 그림에서 보여지는데 이 그림에 대한 스페인의 설명에 따르면 정복자들이 아즈텍으로부터 이 갑옷을 채택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한 방어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세번째 갑옷은 꼭 끼고 장식이 없는 형태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전사들은 초기에는 이 형태를 입으며 점차 서열이 높아질수록 그에 적합한 것을 입는다.



〈Archaeology 30 (1977), P229;Codex Telleriano-Remensis〉³²
 (그림 7) 자켓 스타일의 면갑옷을 입은 전사들

*2) 16세기 아즈텍의 의례, 역법, 역사에 관한 문서 기록 (소장지 불명)

포로들은 모두 몸에 꼭 끼고 장식이 없는 의복을 입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장면에서는 높은 지위의 무사들도 때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면갑옷을 입기도 하였다.(그림 8, 그림 9) 면갑옷은 아즈텍 군복의 필수적인 요소로 하나만 입거나 또는 보호복으로서 더 장식적인 의복 아래 모든 계급이 다 입었던 것이다.

면갑옷 다음으로 주요한 것은 깃털 테두리의 휘장이 달렸으며 역시 깃털로 되어 있는 튜닉이다.(그림 10) Sahagun은 이 의복이 깃털로 완전히 덮히며 짧은 깃털의 스커트를 이 튜닉과 함께 입는다고 하였다. 이 튜닉은 착용자의 계급에 따라 최소한 여섯 가지의 색과 깃털 종류로 만들어졌다. 스페인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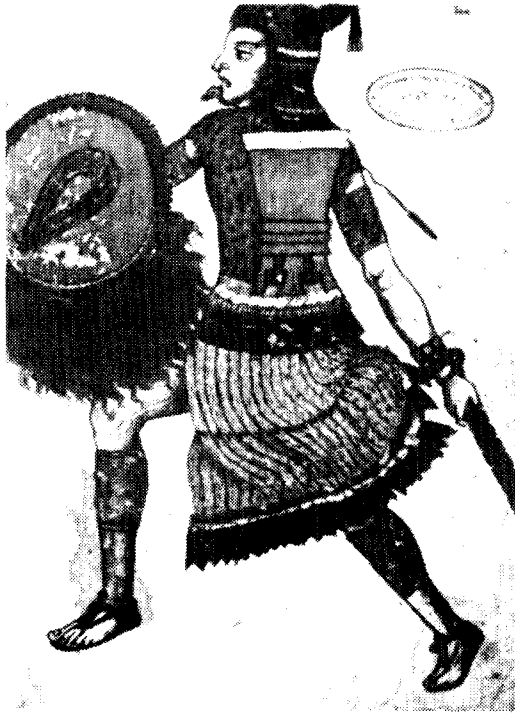


〈Archaeology 30 (1977), P229;Codex Mendoza〉
 (그림 8) 전사의 업적에 따른 의복의 단계



〈Archaeology 30 (1977), P231;Codex Mendoza〉

(그림 9) 돌기둥 양식의 머리에 가장 단순한 면갑옷을 입은 전사들



〈Archaeology 30 (1977), P231: Codex Ixtlixochitl〉^{*3}
 (그림 10) 깃털 튜닉을 입고 있는 데즈코코의 왕

에 나타나 있는 설명에 의하면 “..... 깃털 달린 의복의 강도는 무기와 비례하여 창, 화살, 검까지도 막을 수 있다. 머리를 방어하기 위해 뱀, 호랑이, 사자, 늑대의 머리형상을 썼으며 전사의 머리는 마치 동물의 입 안에 삼켜진 듯이 보인다. 이 두상은 나무에 깃털이나 금, 보석을 입힌 것으로 보기에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하였다.³⁹⁾

아즈텍의 전사복 중 가장 장대한 것은 몸을 감싸는 무사복인 트라위츠트리이다. 이 과시적인 의복과 그 밑에 입는 보호복인 면갑옷에 대해 한 의명의 정복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전쟁에서 쓰이는 갑옷은 손가락 1개반 또는 2개 정도의 두께를 가진 누빈 면으로 된 서츠인데 매우 강하다. 그 위에 한 조각으로 된 무거운 천의 슈트를 입고 등에서 맨다.

이것은 색상이 다른 깃털로 장식되어 매우 의기양양해 보인다. 한 군대는 붉은 색과 흰색, 다른 군대는 초록과 노랑, 나머지는 또 다른 색으로 입는다.” 또한 트라위츠트리는 아즈텍 군대의 위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데 방패, 머리쓰개, 등의 문장으로 완성되는 이 의복은 착용자의 군사적인 업적을 표시하였다. 착용자의 공적은 전쟁에서만 인정되므로 이 특별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을 얻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군사적 용맹성이 또한 일상복을 입을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사회에서 더 나은 의복을 입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만 했다. 트라위츠트리는 스타일과 색에 있어 매우 다양한데 한 분류인 코이요테 의복은 적어도 8가지의 색과 디자인의 변화로 만들어진다. 또는 자가와 귀신, 열대 저지의 이국적이고 무서운 무사를 상징하는 의복이기도 했으며 여러 신위를 흉내낸 형상 등 다양하였다. (그림 11)

1450년 대기군이 중부 멕시코 일대를 괴롭혔을 때, 아즈텍 사제들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여기고 주변의 도시국가와 의례적인 전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⁰⁾ 이 유명한 ‘꽃의 전쟁(Flower Wars)’에 대해 Durán은 방패, 무기, 훈장, 팔찌, 로인 클로스와 맨틀같은 특권적인 품



〈Archaeology 30 (1977), P230: Codex Magliabechiano〉^{*4}

(그림 11) 자가 전사복

*3) 파리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식민지 역사에 관한 문서 기록

*4) 플로렌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16세기 식민지에 관한 문서 기록

목이 얻어질 수 있는 일종의 군사시장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황제는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물건을 사는 것을 금하였고 대신에 전쟁에서의 공격으로만 가능하게 하였다. 몬테스마 1세는 “너희들은 전쟁에 나갈 때 보석을 발견하러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비록 왕의 아들이라도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박탈당할 것이다. 그는 평민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이며 그의 비겁함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⁷⁾ 나아가 Codex Mendoza³⁸⁾에서는 군대조직을 전쟁에서 포획한 노예의 수에 따른 등급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 계급은 포로의 수에 따라 화려한 깃털의 전사복 뿐 아니라 특별한 티마트리를 소유할 수 있다. 만일 1명의 포로를 잡으면 꽃 디자인의 티마트리를, 2명일 때는 오렌지색 가장자리의 티마트리와 깃털 달린 전사복을, 3명의 포로를 잡으면 보석 디자인의 티마트리와 나비 전사복이 수여되었다. 회고 붉은 테두리가 있는 티마트리는 가장 훌륭한 전사에게 왕이 공공예식을 통해 수여하였다. 만약 한 사람의 적도 잡지 못하면 이상의 맨틀을 입지 못하였다.

무사 계급의 또 다른 상징은 머리쓰개의 훈장과 등 문장이었다. 의복의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색상이 더 화려하거나 머리 훈장이 첨가되면 서열이 더 높았다. 그림 8의 적의 영역을 정찰하는 4명의 무사들은 머리가 돌기둥 양식(temillotl style)으로 정돈되어 특권 계층임을 표시하는데 즉 전쟁에서 포로를 많이 잡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높이 솟은 문장은 무사들이 소속 군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였고 어려움에 처할 때 전사의 사기를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매우 가시적인 지위획득의 수단으로 의복을 인지함으로써 아즈텍인들은 효율적으로 전쟁의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열구조로서의 전쟁은 오히려 Cortés에 의해 이용당하였다. 1520년 6월, 오투바(Otumba) 전투에서 스페인 정복자들은 패배를 겪고 테노치티트란에서 쫓겨 나왔다. 부상당하고 지친 스페인군은 트락스칼라(Tlaxcala)로 되돌아 가려 했으

나 아즈텍제국의 수많은 군대는 오투바 평원에서 스페인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적으로 열세임을 깨달은 Cortés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는 전장을 훑어보고는 곧 아즈텍의 지휘관을 찾아 내었다. 그는 화려한 옷차림과 거대하고 특징적인 깃털, 등에 매어진 문장 등으로 쉽게 구별될 수 있었다. Cortés의 지휘 아래 남은 스페인 군대는 인디안 군대로 진격하여 지휘관을 죽이는데 성공하였다. 지휘관과 상징적 표상을 잃은 아즈텍인들은 곧 공포에 차서 사기가 저하되었다. 이처럼 전쟁에 대한 인디안과 스페인군 사이의 개념 차이는 스페인군과 접촉 후 2년만에 아즈텍을 붕괴시킨 것이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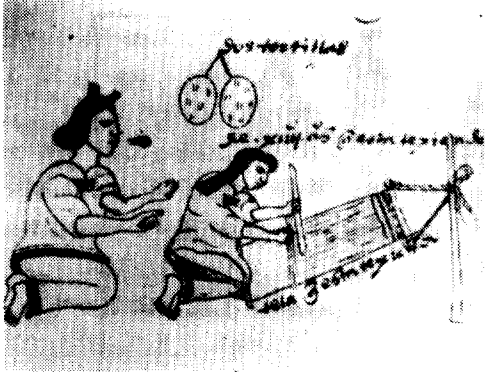
테노치티트란에 대한 포위 공격이 끝났을 때는 유럽 정복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조공에 관한 흥정은 없었으며 대신 아즈텍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쳤다. 정치체도가 폐지되고 신위의 파괴와 함께 복합적인 사회 조직망의 붕괴가 따랐다.⁴⁰⁾ 복식금지령과 전사의 서열은 사라졌으며 열대의 깃털과 고무, 금, 은을 아즈텍으로 수송해 오는 조공체계 역시 사라졌다.

오늘날 남아 있는 스페인의 역사적 자료나 인디안의 몇몇 그림 기록은 아즈텍복식이 매우 화려한 군복 중의 하나였음을 주장하기에 충분하다.

4. 직조문화

메조아메리카에서는 기원전에 면을 발견하였고 옥수수 다음으로 두번째 큰 규모로 재배하였으며 면사를 방적하여 직조기에서 정교한 문양의 직물을 짰다.⁴¹⁾ 이 지역의 의복구성의 기본 단위는 한 조각의 수직천(handwoven cloth)인데 그 규모는 백 스트랩룸(backstrap loom)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간단한 2개의 빔(beam)으로 구성된 이 직조 기구는 한 끝을 나무나 말뚝에 부착하고 다른 끝은 직조자의 허리를 두른다. 이 직조기에서는 4면이 정리된 비교적 폭이 좁은 피륙이 나오는데 더 이상의 과정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직물의 생산은 중요한 생활의 측면이며 여성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직조하고 제물로서나 사원에서 입을 의례복을 직조하였다.⁴²⁾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가 직조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머

³⁷⁾ 옥스퍼드 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16세기 아즈텍에 관한 문서 기록.



〈Margot Scheville, Costume as Communication, 1986, P13: Codex Mendoza〉

(그림 12) 딸에게 직조를 가르치는 아즈텍의 어머니

니를 모방하여 직조를 배웠다. 12세 전까지는 어린이의 놀이감 대신으로 실과 직조 장치가 주어지며 12세가 되면 신중하게 직조하도록 기대되어졌다.(그림 12)

16세기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직조하였으며 이것이 아즈텍사회의 복잡한 경제와 사회구조의 불가결한 부분이 된 직물 잉여분을 만들어냈다. 스페인 정복 초기의 한 책에는 "... 어떤 경우라도 인디안 여성들이 공물로 바쳐야 하는 직물을 만들기 위해 감금될 수 없으며 자신의 집에서 직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⁴⁰⁾

아즈텍사회의 모든 계급은 손으로 만든 직물로 된 단순한 형태의 동일한 의복을 입었지만 착용자의 지위는 섬유, 장식의 정도로 구분되었다. 하위 계층에 할당된 용설란은 중앙멕시코의 고원 지대에서 충분히 공급되었으나 상류 계층의 섬유인 면은 6,000피트 이상의 높이에서는 자랄 수 없으며 무역이나 조공의 체계를 통해 수입되어야 했다.⁴¹⁾ 이러한 직물 재료 및 가공 직물의 공급은 계층화된 사회의 복식 금제령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의복과 장식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했다.

의복으로서 뿐 아니라 직물은 종교적 봉납, 신위 장식, 사원과 궁전의 휘장, 가정용품, 지참물, 수의 등으로도 사용되었으며 큰 사각형의 천(quachtli)은 교환의 매개였다. 발견된 봉납 의복 중에는 위사가

두드러지며 목에 트임이 있는 평직 우이필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붉은색으로 염색이 된 듯하며 더 큰 우이필은 꼬인 위사 프린지(fringe)로 마무리되어 있다. 이들과 함께 여러 개의 면직물이 발견되었는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는 누비기도 했다.

정복 후 스페인 사람들이 페달 직조기를 도입하면서 토착인들도 스페인의 재단-봉제 구성법(cut and sew tailored fashion)에 필수적인 직조법을 알게 되었다. 또 16세기에 스페인에서 양이 도입됨으로써 모의 따듯함과 질기고 염색이 가능한 점들이 직조자들에게 쉽게 채택되었다.⁴²⁾

5. 조공을 통해 본 복식

스페인군이 아즈텍에 도착할 당시 아즈텍제국은 멕시코만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38개 주로 구성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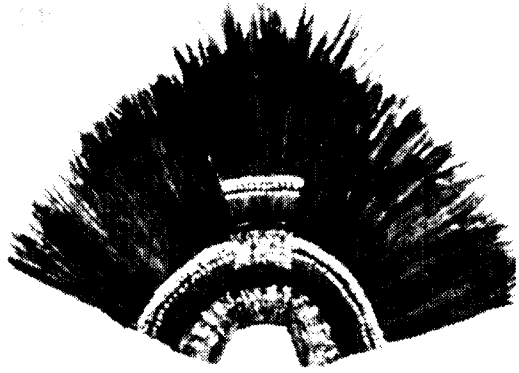
〈Archaeology 37 (1986), P18〉

(그림 13) 16세기의 조공에 관한 문서

다. 이 지역 각각은 80일 간격으로 정기적인 조공을 테노치티트란에 바쳐야 했다. 제국의 조공은 직물을 포함하여 깃털, 고무, 가공하지 않은 면 등 다양하였다. 16세기의 그림 기록에는 한 서부 민족이 수도에 보내는 물품들이 그려져 있다.(그림 13) 제일 윗줄 왼쪽 두번째 표시는 '운하'를 의미하는 물그릇 위에 놓여 있는 후추로 치알판(Chialpan) 도시의 이름이었다. 장방형의 디자인은 맨틀과 의복을 나타낸다. 깃털은 400이라는 수를 나타내고 기는 20을 나타내며 그 지역은 3,600개의 맨틀을 책임져야 했다. 또한 100개의 구리 도끼날과 향료 바구니를 보내야 했다. 옥수수와 콩 한 상자, 경옥 5줄, 1,200개의 세라믹 그릇도 바쳐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꿩 깃털의 머리쓰개가 달린 노란 깃털 전사복과 좀 더 평범한 형태의 붉은 깃털 겹옷 20벌을 내는 것이다. 각 의복에는 특이한 디자인의 깃털 방패도 동반되었다.⁶⁵⁾

아즈텍제국은 금전 통화가 없었으며 카카오 열매가 통화의 한 형태였으나 축제 때 음료로서 소모되는 일상품이며 상류 계층을 위해 보존되었다는 것이 특별하다. 많은 수를 세기 위해서는 맨틀이 측정의 기준이었다. 예를 들면 큰 맨틀은 코코아 100그레인이나 통나무 배 하나와 동일한 가치인 반면, 30개의 맨틀로는 노예를 하나 살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아즈텍 남자는 1년간 기본적인 물품의 수요 충족을 위해 20벌의 의복이 필요했다. 아즈텍제국은 80일마다 5십만개 이상의 맨틀을 조공으로 받았으므로 1년에 2백만개가 넘었다. 그 중 상당량은 스페인 정복 후 유럽으로 보내졌는데 스페인에서도 그 가치는 높이 평가되었다. 스페인과 네델란드의 왕인 Charles 5세에게 보내진 첫 공물가운데 의복이 잘 나타나 있다.⁶⁶⁾ 1520년 독일 예술가인 Albrecht Durer는 공물로 보내진 것들을 보기 위해 브뤼셀로 가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황금의 신세계에서 왕에게 보낸 물건들을 보았다. 이상한 의복, 맨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물건 등 그 모두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놀라왔으며 가치가 매우 높았다. 내 평생 나는 그렇게 매혹적인 것을 보지 못했고 멀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비범한 재주에 감탄했다.” 이처럼 황홀한 물품들은 왕금의 땅을 정복하려는 스페인 제



〈Archaeology 37 (1986), P19〉

(그림 14) 금으로 장식된 꿩 깃털의 몬테스마황제의 왕관

왕의 욕구를 증가시켜 결국 신대륙의 금속제품은 스페인의 금은괴를 만들기 위해 녹여졌고 직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519년부터 1524년 사이 스페인으로 보내진 초록색의 꿩 깃털의 머리쓰개만이 남아있다.(그림 14)

IV. 결 론

아즈텍제국은 15세기부터 16세기 초에 걸쳐 메조아메리카에서 가장 번성한 국가를 이루었다. 그들의 문화는 독특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군사적, 정치적 질서를 중요시 하였고, 의례적이고 관료적인 가치관은 생활의 여러 측면 중 특히 복식에 잘 반영되었다.

아즈텍의 복식 유형은 로인 클로스, 맨틀, 랩어라운드 스커트(wraparound)와 같이 그대로 인체 위에 두르는 것과 와이필, 단순한 자켓과 같이 직물을 봉제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오늘날 멕시코의 민속의상으로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신분 계층이 엄격히 구분된 사회구조 속에서 아즈텍의 복식은 법령에 의해 통제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평민들은 용설란 또는 유카 섬유의 의복만이 허용되었다.
2. 면 의복은 상류 계층만 입을 수 있었다.
3. 상류 계층에 허용될 수 있는 장식과 색상, 깃털

의 양이 규정되었다.

4. 맨틀을 입는 방법, 샌달의 장식이 통제되었다. 그러나 복식규제는 의복의 재료에서 보다 중요하게 나타나며 하류 계층이 상류 계층의 의복을 모방하는 표현 방식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덜 엄격하였다. 아즈텍의 복식 중 가장 가시적인 지위상징의 수단이었던 맨틀은 귀족과 하류 계층 모두가 용설란 섬유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섬유보다는 색상과 디자인이 사회적, 미적 견지에서 선택의 결정요인이었다.

이즈텍사회가 점차 부유해짐에 따라 복식에 있어서의 장식욕도 증가하여 사실상 복식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힘들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 사치스럽고 금제된 상류 계층의 복식을 구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복식에 대한 통제는 일상 복보다는 의례시 사회적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 입는 지위 상징복을 통제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전쟁이 많았던 아즈텍제국은 복식에 있어서도 전사복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화려한 머리쓰개와 특수한 문장으로 완성되는 장대한 아즈텍의 전사복은 상대편의 사기를 동요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역사상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장관을 이루었다. 또한 전쟁에서의 공적에 따라 특권적인 의복을 수여함으로써 개인의 지위상승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도 큰 성과를 보았다.

아즈텍의 복식문화는 스페인 정복자들을 황홀하게 만들기에 충분할만큼 화려한 것이었으며, 복식은 부와 정치력, 종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매개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 화려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이면서 복식연구에 제한점으로 남는다.

본 연구는 복식문화사의 일면으로서 다른 서양복식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메조아메리카의 중심지였던 아즈텍의 복식을 고찰함으로써 그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아울러 복식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한 것으로 앞으로 남녀복식의 유형과 스페인이 아즈텍을 정복한 후의 복식의 변화과정에 대한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1988, pp. 64~69.
- 2) Patrica R. Anawalt, "What price Aztec Pageantry", *Archaeology*, Vol. 30, No.4, 1977, p. 227.
- 3)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pp. 417~418.
- 4) 전규태, 환상의 아즈텍카왕국, 서문당, 1981, p. 58.
- 5) Pedro Armillas, *The Way to Empire: The Aztec*, in Robert Wauchope(eds.), *The Indian Background of Latin American History*, Alfred. A. Knopf, Inc., 1970, pp. 50~56.
- 6) 세계의 역사, 중국인민 출판사 편, 청년사, 1990, pp. 131~132.
- 7) 전규태, op. cit., pp. 22~23.
- 8) *The Encyclopedia Americana*, American Corporation, International Headquarters, pp. 795~800.
- 9) Esther Pasztory, *The Function of Art in Mesoamerica*, *Archaeology* Jan / Feb, 1984, p. 20.
- 10) Robert C. Padden, *Huitzilopochtli*, in Robert Wauchope(eds.), op. cit., pp. 58~70.
- 11) 전규태, op. cit., p. 24.
- 12) Eshter Pasztory, op. cit., pp. 21~23.
- 13) Ibid, p. 25.
- 14) Mary E. Roach and Kathleen E. Musa,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Western Drees*, Nutriguides Inc., 1980, p. 2.
- 15) J. C. Flu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The Hogarth Press, 1930, pp. 122~136.
- 16) Patrica Anawalt, *An Exprimint in Cultural Reconstruction*, Paper delivered at the 73rd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nthropology Association, 1974, pp. 19~24.
- 17) Franc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Thames and Hudson, 1967, Quoted in Mary E. Roach and Kathleen E. Musa, op. cit., p. 8.
- 18)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ld*

- Costume, Bonanza, 1986, pp. 282~283.
- 19) 田中薫, 田中千代 공저, 原色世界衣服大圖鑑, 保育社, 1980, p. 65.
- 20) George C. Vaillant, Aztec of Mexico; origin, rise and fall of the Aztec nation, Doran, 1941, p. 137.
- 21) Margot B. Scheville, Costume as communication, Brown University Press, 1986, p. 2.
- 22) Esther Pasztory, op. cit., pp. 20~21.
- 23) George C. Vaillant, op. cit., pp. 137~138.
- 24) Esther Pasztory, op. cit., p. 21.
- 25) Doreen Yarwood, op. cit., p. 283.
- 26) 田中薫, 田中千代, 공저, op. cit., pp. 66~67.
- 27)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9, p. 320.
- 28) Patrica Anawalt, "Costume and Control: Aztec Sumptuary Laws", Archaeology, vol. 33, No.1, 1980, pp. 33~34.
- 29) 라이프 인간세계사—고대 아메리카—,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87, p. 126.
- 30) The New Encyclopedia of Britanica, Encyclopedia Britanica, Inc. p. 548.
- 31) 전규태, op. cit., p. 189.
- 32) Patrica Anawalt, Costume and Control, op. cit., pp. 41~43.
- 33) Sahagun Bernardino de, d. 1590, General History of the Things of New Spain: Florentine Codex, Translated from the Aztec into English by Arthur J. O. Anderson and Charles E. Dibbl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1590.
- 34) Patrica Anawalt, "What Price Aztec Pareantry", op. cit., p. 227.
- 35) Ibid., p. 228.
- 36) 전규태, op. cit., p. 164.
- 37) Fray Diego Duran, Book of Gods and Rites of the Ancient Calendar, ed. and trans. by D. Heyden and F. Horcacas, University of Oklahomas Press, 1971, pp. 197~200.
- 38) Patrica Anawalt, "What Price Aztec Pageantry", op. cit., p. 233.
- 39) Margot B. Scheville, op. cit., p. 9.
- 40) Doreen Yarwood, op. cit., p. 283.
- 41) Margot B. Scheville, op. cit., pp. 12~13.
- 42) Donald and Dorothy Cordry, Mexican Indian costume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68, p. 1.
- 43) Charles Gibson, the Role of Environment in the Valley of Mexico, in Robert Wauchope(eds.), op. cit., pp. 37~45.
- 44) Margot B. Scheville, op. cit., p. 14.
- 45) Esther Pasztory, op. cit., p. 21.
- 46) Paul Keleman, Medieval American Ar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42, p. 36.